

무각사 청학스님 2000일 기도회향 축사 요지

2013. 2. 20. 광주 무각사

애써 기도해주신 신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오늘은 2000일기도 회향 하는 날이다. 우리는 사시기도 때마다 회향진언 하는데 그 뜻이 참으로 뜻 깊고 중하다.

회향진언이란 오늘 내가 기도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 공덕을 나와 내 가족이 받고 남은 것을 모두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발원이다.

여러분이 2000일 동안 쌓은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와 가족이 받은 나머지는 모두 이웃과 함께 하겠다. 부족한 이들에게 골고루 회향하겠다는 기도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염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동짓날 소록도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팔죽을 공양했던 깊은 인연을 지녔다. 그런 깊은 인연이 있길래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지 스님과 더불어 늘 함께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기도
하겠다.

참고 - 청학스님 인사말 요지

사실 총무원장 스님 중요한 일정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느라 일정을 바꾸신다고 아주 애를 먹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정말 감사드린다.

향적스님과는 저와 많은 인연이 겹쳐 저와 함께 하게됐고 전 등사회주 장윤스님께서도 외국에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가야한다고 하셨는지 어렵게 오시게 됐다. 본사 주지 무상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도 어려운 걸음을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

기도를 시작한게 2천일을 맞았는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청 땅을 불하받고 불사도 많이 진척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무원장 스님께서 도와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제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닌데 기도하는 6년간 단 한번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 부처님의 가피다.

또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무엇보다 하루 세 번 기도하는 동안 단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신도들이 함께 했는데 기도를 회향하게된 것은 전적으로 신도분들 덕분이다. 목탁으로 허공에 꽃을 그리다 보니 6년이 지났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꽃이지만 언젠가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자. 회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해야할 일 많은데 처음에는 많이 조급해 했다. 이제는 느긋해졌다. 천일 회향을 50일 남겨두었을 때는 달력에 마칠 날을 기다리며 하루 하루 달력에 표시를 하다가 점점 가까워져 오니 겁이 덜컥 났다.

100일 기도하고 천안통이 열렸다는 스님도 있던데 나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부끄러웠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우리만 조용히 회향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이 오셨다.

무각사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목탁으로 허공에 꽃을 그리겠다. 회향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속정진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며 보시 하는 일을 이어가 달라는 것이다.